

아드보 '임기응변술' 빛났다

프랑스전 상황따라 '스리백→포백→스리백' 전환 적중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스리백(3-back)→포백(4-back)→스리백으로 포메이션을 바꾸는 '삼색 용병술'로 역전극을 이뤄낸 디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은 19일 프랑스전에서도 초반 4-3-3 포메이션으로 프랑스의 과장 공세에 맞서다 후반 휘슬이 불리자 과감한 변형을 시도했다. 전반에는 미드필더진을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이호(울산), 김남일(수원)로 썼다. 삼각형 형태를 이룬 중원 관대는 김남일이 포백 라인 바로 앞에 서서 프랑스의 플레이메이커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을 막기로 '약속된 플레이'를 펼쳤다.

하지만 대인마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프랑스 미드필더진의 압박이 너무 강해 주도권을 잃었다. 실뱅 윌토르(리옹)와 플로랑 말루다(리옹)에게 번번이 돌파를 허용한 것도 포메이션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는 "이런 대형을 스코틀랜드 전지훈련에서도 몇 차례 연습했지만 실전에서 써보니까 낯설어서 힘들었다. 파트리크 비에라와 클로드 마켈렐레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전반에 경기가 풀리지 않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아보던 이을

용(트라브존스포르)을 빼고 설기현(울버햄프턴)을 투입했다. 토고전에서 쓴 '4인 공격수' 전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설기현이 투입돼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자 측면에 있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새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했다. 후반 27분에는 다시 한번 '감수'를 봤다. 벤치에 앉혀둔 '비장의 카드' 안정환(위스부르크)을 이천수(울산) 대신 투입했다. 조재진(시미즈)이 중앙 원톱에 깊숙이 박히고 안정환이 바로 뒤를 받치자 박지성은 다시 사이드로 이동했고 이 때부터 아드보카트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곧바로 9분 만에 동점골이 터졌다. 박지성이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의 설기현에게 볼을 내주고 설기현에게서 올라온 크로스를 조재진이

헤딩으로 떨거준 뒤 다시 박지성이 재지킴이 마무리를 지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대반전은 거짓말처럼 들어맞았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전반에 프랑스의 개인기와 압박에 밀려 고전했는데 후반부터 경기력이 나아져 비길 수 있었다. 특히 후반에 선수를 교체하고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 효과를 봤다. 후반부터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요 경기 전망

영원한 라이벌 큰 관심

▲B조 잉글랜드-스웨덴(21일 오전 4시·퀵론)=1승1무를 달리고 있는 스웨덴이 이기면 다른 경기와 상관없이 16강에 무조건 진출한다. 이 경우 스웨덴은 조 1위, 잉글랜드는 2승1패로 조 2위가 된다.

잉글랜드는 16강이 확정돼 느긋한 입장이지만 결코 호락호락 몰려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예 회복을 노리는 잉글랜드는 부상 공백을 깨고 트리니다드토바고전에 출전했던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가 선발로 출격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 프래디에 웅배리와 마르쿠스 알베크 등이 포진한 스웨덴은 '천적'으로서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3차전 결과에 따라 A조의 독일과 16강전에서 만날 가능성도 커 이례적재 '속적'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트리니다드 '실날 희망'

▲B조 트리니다드토바고-파라과이(오전 4시·카이저슬라우테른)=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16강 탈락이 확정된 파라과이를 상대로 16강 진출의 희망을 건다.

예상을 깨고 스웨덴과 무승부라는 소독을 건진 트리니다드는 잉글랜드에 패해 1부1패지만, 파라과이를 꺾고 잉글랜드가 스웨덴을 이겨주면 스웨덴과 나란히 1승1무1패로 승점이 같아진다.

2차전까지 골득실이 '-2'로 불리한 트리니다드는 잉글랜드가 스웨덴을 이기는 고마운 상황이 도래한다 해도 스웨덴과의 골득실차에서 앞서려면 최대한 골을 많이 넣거나 잉글랜드가 큰 골 차로 스웨덴을 이겨줘야 한다.

멕시코 16강 갈림길

▲D조 포르투갈-멕시코(23시·젤렌키르헨). 이란-앙골라(23시·라이프치히)=D조도 B조와 상황이 유사하다.

앙골라와 이란을 차례로 꺾고 2승을 거둬 40년만에 16강 진출이 확정된 포르투갈을 상대로 멕시코가 남은 티켓 1장을 노린다.

1차전에서 이란을 3-1로 꺾은 멕시코는 2차전에서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앙골라를 제압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려다 0-0 무승부로 뜻을 이루지 못해 포르투갈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게 됐다.

포르투갈을 맞아 0-1로 '선방'하고 멕시코와 무승부 황제를 한 앙골라도 이란을 꺾고, 멕시코가 포르투갈에 지면 승점이 1승1무1패로 같이 골득실차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2차전까지 골득실이 '-1'인 앙골라는 골득실이 '2'인 멕시코에 비해 절대 불리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佛運' = '不運'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가 그 이후로 계속되는 '월드컵 불운'에 몸서리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조별리그 경기에서 골대만 무려 5번이나 맞는 불운 끝에 결국 한 골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던 프랑스가 이번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심판의 애매한 판정 탓에 또다시 탈락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프랑스 불운의 징조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와 1차전에서 나왔다.

이날 전반 38분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는 페널티 지역 내 정면에서 오른쪽 슛을 했으나 이 공은 스위스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의 손에 맞고 방향이 바뀌었다.

스위스전서 상대 핸들링 반칙 주심 모른 채

한국전 골라인 부근 헤딩 숏 득점 인정 안해

앙리와 옆에 있던 프랑크 리베리는 즉각 심판에게 핸들링 반칙이라고 항의했으나 주심은 이를 모른 채 했다. 뮐러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어 보였지만 위난에 좋았던 기회가 상대 수비수 손에 맞아 빗나간 것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더라도 스위스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고 프랑스는 스위스와 0-0으로 비겼다.

19일 한국 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반 32분 파트리크 비에라의 헤딩슛이 골라인을 넘어간 것으로 보였지만 심판은 이를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TV의 느린 그림으로 봐도 이 슛은 골라인을 통과했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프랑스로서는 기가 찰 노릇. 이 득점이 인정돼 2-0으로 점수차가 벌어졌다면 경기는 프랑스의 대승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결과론적인 하지만 판정이 제대로 됐다면 2승으로 넉넉하게 16강행을 확정지었을 뻔 했던 프랑스는 2무로 오히려 탈락위기에 몰려있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24일 토고 전에는 지네딘 지단과 에리크 아비달이 경고 누적으로 뭍 수 없는 지경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주전에서 브라질팀의 두번째 골을 넣은 프레드가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순위	국가명	승	무	패	득	실	승점
A조	1	에콰도르	2	0	0	5	0	6
	2	독일	2	0	0	5	2	6
	3	콜롬비아	0	0	2	0	3	0
	4	코스타리카	0	0	2	2	7	0
B조	1	잉글랜드	2	0	0	3	0	6
	2	스웨덴	1	1	0	1	0	4
	3	트리니다드토바고	0	1	1	0	2	1
	4	파라과이	0	0	2	0	2	0
C조	1	이탈리아	2	0	0	8	1	6
	2	네덜란드	2	0	0	3	1	6
	3	코트디부아르	0	0	2	2	4	0
	4	세네갈	0	0	2	0	7	0
D조	1	포르투갈	2	0	0	3	0	6
	2	멕시코	1	1	0	3	1	4
	3	앙골라	0	1	1	0	1	1
	4	이란	0	0	2	1	5	0
E조	1	이탈리아	1	1	0	3	1	4
	2	체코	1	0	1	3	2	3
	3	가나	1	0	1	2	2	3
	4	미국	0	1	1	1	4	1
F조	1	브라질	2	0	0	3	0	6
	2	호주	1	0	1	3	3	3
	3	크로아티아	0	1	1	0	1	1
	4	일본	0	1	1	1	3	1
G조	1	대한민국	1	1	0	3	2	4
	2	프랑스	0	2	0	1	2	2
	3	스위스	0	1	0	0	1	1
	4	토고	0	0	1	1	2	0
H조	1	스페인	1	0	0	4	0	3
	2	시리아	0	1	0	2	2	1
	3	튀니지	0	1	0	2	2	1
	4	우크라이나	0	0	1	0	4	0

■ 주요 경기 결과

크로아티아, 뼈 아픈 페널티킥 실축

크로아티아-일본 (0-0)

승리 외에는 해답이 없었던 경기에서 두 팀은 비겼다. '하얀 펠레' 지루 감독이 이끄는 일본은 18일 밤(이하 한국시간) 뉘른베르크 프랑켄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수문장 가와구치 요시카쓰의 페널티킥 선방에 힘입어 크로아티아에 0-0 득점없이 경기를 마쳤다. 일본은 이로써 크로아티아와 나란히 승점

1을 확보해 16강진출 '불씨'를 살렸지만 세계최강 브라질을 마지막 상대로 남겨놓았다. 또 같은 조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져야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1998년 프랑스대회 3위팀 크로아티아도 어이없는 페널티킥 실축으로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 부담이 커졌다. 일본과 크로아티아는 23일 오전 4시 브라질, 호주와 각각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히딩크 마법 '삼바군단'엔 안 통했다

브라질-호주 (2-0)

'삼바군단' 브라질이 거스 히딩크의 마법을 깨고 16강에 합류했다. FIFA 랭킹 세계최강 브라질은 19일 새벽 뮌헨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축구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후반 4분에 터진 아드리انو, 후반 44분에 터진 프레드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했다. 크로아티아와 1차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브라질은 남은 일본과 경기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또 브라질은 2002년 한일월드컵 7전 전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2연승을 보태 본선 9연승의 '미개척지'를 계속 넓여가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반 3분, 1차전에서 흑룡을 들었던 호나우두가 감각적으로 뒤로 띄워준 공을 카카가 오른쪽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브라질이 주도권을 틀어쥐었다. 결승골은 후반 초반에 나왔다. 상대 골문 왼쪽에서 호나우두가 왼발로 반대편에 있던 아드리انو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이어받은 아드리انو가 호주의 슛 치퍼필드의 수비를 피해 왼발 강슛, 그물을 갈랐다. 히딩크 감독은 선제골을 내준 뒤 해리 쿼일과 존 알로이지 등 공격수 2명을 교체 투입, 동점골을 노렸다. 하지만 동점골은 터질 듯 터질 듯 하면서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 브라질은 후반 44분에는 거어이 프레드가 추가골을 넣었다.